

[주일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018. 11. 4. 이현래 목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요3:16).”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으로 취급받는다. 교회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배우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 유치부에 입회 안해 보신 분은 잘 모를 것이고, 주일학교 안 다녀보신 분들도 잘 모를 것이다. 주일학교 다닌 사람은 다 아는 구절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다. 한 번 따라서 다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요3:16).”

아주 중요하고도 좋은 말씀인데 대부분은 건성으로 넘어간다. 주일학교에 가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냥 읽기는 쉬운데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른다. 사실은 잘 모른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씀을 늘 들어서 그렇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른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구절이다.

또 그를 주셨는데 안 믿으면 멸망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좋은 말인데 안 믿으면 멸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들이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 말씀을 들이댔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었는데 안 믿으면 멸망이라고 했다. 겁이 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구절이다.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멸망이 아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 안 믿는다고 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왜 멸망을 받는다고 했는가? 멸망은 하나님 필요에 쓸모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사람을 지었는데 그 필요에 소용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는 멀쩡해도 내가 필요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나에게 대해서는 멸망이다. 멸망이 그런 뜻이다. 멀쩡한 사람에게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에 어긋났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창1:26).”** 했으니까 그분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실재이시니까 그분을 나타낼 형상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갈망이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다. 마음은 훌륭한 것이지만 손발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음은 있는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음은 얼마나 눈과 손발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말의 내용이 내가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못 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못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주먹이 없는 사람이 싸움을 하면 맞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

불교는 거기에서 출발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다.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니고, 인식하는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식하는 내가 독존한다는 말이다. 내가 이것을 마이크로 인식한다든지 꽃이라고 인식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꽃으로 인식하는 그것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러니까 말이 된다. 아무리 뭐가 있더라도 내게 보이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에 대한 반론은 이런 것이다. 아무리 눈이 있어도 없으면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다. 눈이 아무리 밝아도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을 닦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혜안, 지혜로운 눈을 갖느냐는 것이다. 그 지혜로운 눈을 가지면 보일 것만 보이는데 지혜의 눈이 없으면 안보일 것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헛된 욕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다 허상이라고 한다. 제행무상,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는 것이다.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을 수도 있고 저녁에 있다가 아침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뜬 구름처럼 있다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내가 계급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이다.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한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 있는 것을 보라는 그런 뜻이다. 그런데 진짜로 있는 것도 눈이 없으면 못 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갈고 닦고 있다. 계속 안경을 닦고 있는 것이다.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속지 않으려고 평생을 닦고 있다.

그래서 인간 문제를 말할 때는 굉장히 심오하다. 인식도 그냥 인식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인식의 단계를 수십 단계로 나누어 놓았다.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한 것처럼 수 없는 인식의 단계가 있다. 한 가지 물건을 놓고도 인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왜 그런가? 어렸을 때 본 소나무와 나이가 많아서 본 소나무는 다르다. 소나무는 그 소나무이지만 인식이 다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내가 40년 만에 고향에 갔는데 그때 우리 동네에 참 좋은 집이 세 채 있었다.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가 보았더니 너무 초라하게 보였다. 그때는 굉장히 좋은 집이었는데 저런 집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봐도 그 집이 아니었다. 한 집을 보고 다른 집도 가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옛날 시골에서는 정말 좋은 집이었는데 그때는 기둥도 크고 그랬는데 얼마나 작고 조그만 기둥으로 보이는지. 내 눈이 의심스러워서 몇 번을 다시 보았다. 사람이 인식하는 것도 일정하지 않다. 슬플 때 본 것과 기쁠 때 본 것이 다를 수 있다. 참 이상하다. 문제는 인식하는 주체인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자기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데서 출발해서 '나는 나다.'로 돌아온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다. 하늘로부터 온 것,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눈을 다 뜨고 있고 그래서 인식을 한다고 해도 전혀 모르던 것이 왔다는 뜻이다. “독생자”라는 말도 우리에게서 전혀 없는 말이다. 우리는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뜻이다.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모르는 일이다.

유대인들이 기껏 아는 것이 모세였다. “지면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해서 그들이 그때까지 안 최고의 사람이 모세뿐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놓고 하는 말이 독생자라고 한다. 예수는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 인간의 개념 속에는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사람들하고 같이 놀았었는데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르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그를 처녀로 잉태했다고 했겠는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우리는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다 안다. 만나지 않아도 다 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만나 봐도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제자들이 얼마였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뒤로 가면 다 모른다고 한다. 우리 속았다. 저런 사람인지 알고 온 것이 아닌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마는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오병이어로 5천명도 먹이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죽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

나로부터 생각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은 다르다. 우리 생각과 우리 세계뿐이라면 불교의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리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은 불교 말을 가지고는 안 된다. 처녀로 잉태한 사람을 불교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는 일이고 모르는 사람이다.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외아들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전혀 우리에게 없는 사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주었다는 뜻이다. 이정도 됐으면 여러분이 믿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한다. 이 사람을 모르면 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뒷 절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 이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라는 말도 된다.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다.

알고 보면 심각한 문제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말은 길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영생이고 하나님과 갈라지면 멸망이다. 왜냐하면 사람도 남자와 같이 사는 여자는 애기 낳는데 남자가 필요하지만 남자가 없는 여자는 애기 낳는 데서는 죽은 사람이다. 멸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소용없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에게는 죽은 사람인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했다. 그런데 800년 900년을 살고 했는데 언제 죽었다는 것인가? 그때 죽었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먹자마자 너는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과는 독립된 사람이다. 선악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생각은 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보고 판단하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멸망이다.

알고 보면 선악을 아는 지식은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선악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니까 그렇다.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보니까 형제가 판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형제를 판단하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래서 나는 하나님에게는 죽은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과 갈라져버렸으니까 죽은 것이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과일과 생명나무의 과일은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없다. 사람은 어차피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 같이 먹을 수 없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한다.

아담은 그 후에도 잘못했다고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못 먹는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왔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거기에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는데 다른 것을 심을 수 없고 심어도 안 된다. 어차피 콩 심을 밭은 콩을 심어야 되고 거기에 잘못되었다고 뭘 첨가하면 안 된다. 다른 것은 첨가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갈아서 심어야 한다.

예수님이 비유에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밀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고 제자들이 물었다. 예수님이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했다. 섞여진 것을 보고 원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아니다. 그냥 뒤라. 추수 때까지 그냥 뒤라.”고 했다. 왜냐하면 지금 뽑으면 밀까지 뽑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갈라진다고 이야기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을 뿌린 곳인데 가라지를 뿌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밀밭도 가라지 밭도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당연히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살지만 교회생활은 그것으로 하면 안 된다. 선악으로 살면 당장 형제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 부모자식 간에도 선악과가 개입하면 관계가 끊어진다.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악하다고 생각되면 그 아이를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된다. 조금만 불구가 있어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자식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부모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부모와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내 부모라는 말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방송에서 잘못된 것이 많다. 마치 장사하는 사람은 도둑놈처럼 이야기를 한다. 찌빵장사는 다 똑같은 것처럼 말한다. 어느 방송에서 만두집을 방송했는데 망하는 만두집이 많이 생겼었다. 어떤 만두에서 뭘 잘못 넣어서 만들었다는 것을 방송했는데 그때부터 전국의 만두집이 다 안 되었다. 아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엄마아빠는 만두를 만드는데 속에 나쁜 것을 넣어 판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 부모가 만두집을 한다는 말을 못한다. 그래서 선악과는 참 무서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교회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해관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곳이다. 조건이 없는 사회이다. 선악과가 있으면 선악과로 판단해버린다. 다른 곳에서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에는 그럴지라도 없고 순수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인격 대 인격뿐이니까 악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끝이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이 딱 가로막고 있다. 선악과가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선한 선생님이여~”했다. 니고데모는 유대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70명으로 구성된 공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천주교로 말

하면 추기경 같은 그런 급의 사람이니까 최고급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 낮에 찾아오기가 자기 신분상 어려운 형편이니까 밤에 찾아온 것이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했다.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당신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합니까.”했다. 이 말은 ‘나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기준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는 그런 말이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을 찾아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찾아와서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선한 선생님이여”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당신이 나를 선하다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는 말을 했다. 하나님 나라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말이 확 바뀌어버린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종교지도자로서 아주 선한 사람이었다. 추기경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인품이나 그런 것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다. 천주교인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 인품이 그만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아주 무안하게 되었다. “선한 선생님이여”하고 상대를 하려고 했는데 선한 일로 상대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합니까.’했다. 이 말은 나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아니라는 뜻이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무안했겠나.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의 세계입니다.’는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4,15).”**는 말씀을 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그 세계와는 다른 세계라는 뜻이다.

세상에 나가면 선한 사람 많다. 훌륭한 사람도 참 많다. 너무 선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고 그 세계에서는 그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세계가 다르다는 말이다.

우리는 교회가 선한 곳이나 악한 곳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다고 악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곳은 거듭난 세계이지 결코 선하냐 악하냐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세상 전체를 보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이런 것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서 없다. 보통 우리는 ‘선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이렇게 생각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선한 사람들은 천당에 가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이렇게 하면 아주 쉽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만 간다고 하면 아주 막막해진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더 막막한 말을 하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니와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했다.

옛날에 이 성령 때문에 헤맸다. 도저히 모르겠더라. 젊었을 때 성령주의가 판을 치는 때였는데 순복음교회가 막 일어나는 때였다. 내가 있는 교회에서 서대문 순복음까지 가는데 걸어서 15분밖에 안 걸린다. 그것밖에 안 걸리고 버스 한 코스 거리인데 그 교회와 우리교회의 온도차이가 엄청났다. 하나는 적도고 하나는 북극인 셈이다. 가보면 기운이 팍 빠진다. 나는 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열기가 얼마나 충천한지 병이 고쳐지고 방언을 하고 이런 세계가 다 있나싶다. 그래서 나도 팔자에 없는 짓을 했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저것을 알아야지 저것을 알지 않고는 아무 것도 안 되겠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내 성질에 없는 짓을 했다. 삼각산에 찾아다니고 또 신비한 데가 있다는 데는 다 찾아 다녔다. 다 해봐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옆에서 해도 나는 안 된다. 심지어는 친구에게 선전을 해서 거기 데려다 놓았더니 이 친구는 한자리에 앉아서 대번에 방언을 하는데 나는 몇 달을 공을 들였는데 말뚱말뚱해서 안 되는 것이다.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웠다. 그냥 접어놓았을 뿐이지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C.C.C.에 와서도 그랬다. 거기도 역시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 나는 저런 열심히 없는데 나도 방언을 하면 저런 열심히 생기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덮어놓고 한 것이니까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앞이 콕 막혔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신나서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런 열심히 안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것을 흉내도 못 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앞이 막혔기 때문에 하룻밤에 내가 흑암을 경험했다. 그리고 나를 인격의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벗어났다. 그렇지 못했으면 거기에 평생 싸여 있을 뻔 했다. 하지는 못하면서 속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을 뻔 했다.

내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방언도 해보고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런데 나는 못했다. 그래서 결혼하면 뭇 좀 덕 좀 보지 않겠나 했다. 그래서 그것이 조건 중에 하나가 됐다. 오죽 하고 싶었으면 그랬겠는가? 그 세계에 있으니까 열등감이 너무너무 심하다.

그런데 여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3:8).” 하니까 성령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R.A 토레이 라고 성공회 신부가 쓴 것이다. 그 책을 사서 봤는데 그것도 희안하였다. 이 사람은 꼭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아닌데 성령을 바람이 오는 것처럼 오는 것이라는 이 말을 한다.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그분이 경영하는 기도원 같은 것이 있다. 대*덕 신부인가 그런데 유명하다. 그런데 그 책을 보고 나니까 더 막막하다. 마지막에는 바람이 오는 것처럼 온다고 써 놓았다.

그런데 바람은커녕 나도 그런 것을 한참 기다렸다. 기도하고 있으면 무슨 징조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뭔가 흔적이 있겠지 스쳐가는 것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스쳐가는 것도 없고 밤중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몸은 오싹오싹하고 어디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오싹하다. 그러니까 영이 오겠는가?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오지 않겠더라.

해 본 분들도 알겠지만 잘되는 분들은 잘되고 팀도 있다. 밤 세워 기도를 한다. 그리고 열심도 있다. 좋은 점도 참 많은데 나는 안 되는데 어찌겠는가? 남은 다 잘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내가 궁지에 몰려서 다른 길을 얻게 되었다. 인격의 세계로 나를 부르신 것을 알았다.

그것은 할 사람은 하고, 못 할 사람은 못해도 되고, 나를 부르신 목표는 그것을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하는 사람을 봐도 괜찮고, 못 하는 사람을 봐도 괜찮고 갈 길은 다른 길이다. 우리를 부르신 길은 다른 길이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불렀다.

예수님도 명백하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3:8).”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도 그럴것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 말이다. 너는 목사가 되어서 그러느냐 이러면 어찌하겠는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 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요3:11).”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는데 너는 모르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막힌 일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네가 이것도 모르면서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다. 너는 하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3:13).”고 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이겠는가. 그런데 사람이 참 수양이 잘된 사람이다. 예수님을 욕하거나 비난을 하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 주변을 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례를 할 때도 그분이 장례를 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보통 분이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자기에게 그렇게 무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끝까지 예수의 시신까지도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것과도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도 관계가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거듭 난다는 말이 우리가 행위가 좀 바뀌진다는 말이 아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거듭 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예를 들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4,15).” 광야에서 독사의 뱀 떼를 만났다.

물리면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모세가 놋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놓고 이것을 쳐다보라. 쳐다본 자는 살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어떻게 놋 뱀을 쳐다보았는데 독사에 물린 독이 없어지는가? 참 난해한 말이다.

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이것은 요한이 한 말 같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뱀하고 연결되어 있다. 광야에 장대에 매달렸던 놋 뱀하고 여기 지금 독생자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다.

놋 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어디다 주었는가? 독생자를 어디다 누구에게 주었는가?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세워놓고 이것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았는데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다는데 어떻게 주었는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려고 애를 참 많이 썼다. C.C.C.에 가니까 마음속에 의자를 그려놓고 거기다 예수를 모시라고 한다. 처음에 들으니까 그럴듯하던데 이것을 모시려고 아무리 해도 모셔지지 않는다. 내가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나는 시내에 나가면 볼 게 많아서 굉장히 산만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가 보면 다 잊어먹는다.

간판이 옳게 되었는지 틀리게 되었는지 왜 저 색깔하나가 지워졌는지 이런 것들 다 보고 다니니까 언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시고 있겠는가. 간판을 보다보면 빨간색만 지워진 데가 있다. 왜 그런가? 빨간색이 먼저 못 쓰게 된다. 그래서 간판이 다른 데는 멀쩡한데 글자 하나가 희미해져버려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쳐다보고 다니는데 언제 내가 예수를 기억하겠는가?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아침에 기도를 해보았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안 되었다. 저녁에 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언제 다 잊어버리고 없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고통을 당해도 집중적으로 당하는 사람, 피땀 싸면서까지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고민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고민하다가도 지쳐서 못하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뭘 해도 하긴 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자가 있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려 해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것인데 나는 안 된다. 정신집중력이 부족하다. 뱀과 독생자를 달아놓고 보니 비슷하다. 광야에서는 뱀이 달려있었고, 골고다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었고, 그래서 이 말을 일부러 한 것 같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끌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이 독생자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 것이 사랑하심이다.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옛날에는 이것이 참 어려웠다. “**이처럼 사랑하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 은혜를 많이 입어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

나는 또 은혜를 입고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때 병원에 가서 죽을 것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다는 이 생각을 몇 년 동안 못했다.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할 때까지 나는 몰랐다. 하나님이 너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줬는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느냐고 할 때, 그때야 내가 그랬다는 것을 알 정도로 이상하게 나는 둔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생각해도 한 번도 그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니깐 이것이 막막하더라. 이제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는 멸망 받을 사람들이는데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모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다. 그것을 한 번 본 사람들은 그것에 평생을 끌려 다닌다. 자기가 음성을 들은 것에 끌려 다니고, 내가 너만 사랑한다고 들었으니까 자기는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을 들어본 일도 없으니까 “**이처럼 사랑하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멸망 받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생의 자리로 왔다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 멸망의 자리에서 옮겨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어떻게 나를 옮겨

놓았는가? 그래서 늘 이야기한다. 뛰어내리지 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참 안된 말이다.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고 구세주인데 그것을 뛰어내리지 못하다니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는 것이다.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는가? 생각해 보라. 믿는다는 것은 의지할 데가 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믿는 것이지 아무 희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믿으라고 하면 믿겠는가.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응답도 해주신다는 것도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아무 기대가 없어보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는 말이다.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기대를 했으면 제자들이 더 기대를 하지 자기들의 일생을 내 놓고 온 사람들인데 버리고 그냥 갔을 때는 아무 기대가 없으니까 간 것이 아니겠는가? 단 1%의 기대도 없기 때문에 간 것이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에서 더 실망을 하고 갔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 정도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거기에 침 뱉고 가지 않으면 다행이고 욕하고 가지 않으면 다행이다. 다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구속이 된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일이다. 거기서 내가 그분과 만나지게 된다. 거기서 보면 내가 거기 있다. 여러분 자세히 보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사람에게 여러분이 있는가? 아니면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있는가?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있다. 너무 쉽다.

나는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분에게는 내가 없다. 나를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 앞에는 나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안에는 내가 없다. 모두들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나는 거기 없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 설사 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이지 그분과 내가 하나는 아니다. 존경하는 것이고 두려워하고 기대하는 것이지 그분과 내가 하나는 아니다.

결국 하나가 아니면 연합이 안 되는 것이니까 무엇을 해도 틈이 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틈을 없애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보면 금방 금방 가까워지는 것 같다. 조금만 있으면 닿을 것 같다. 견우직녀와 똑같다. 금방 닿을 것 같다. 견우직녀가 만나라고 까치들이 모두 와서 머리를 대주고

다리를 놓아준다. 그런데 결국은 헤어지고 못 만나고 간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금방 금방 닿을 것 같다. 조금만 하면 부딪힐 것 같고 만나질 것 같다. 그래서 하는데 못 만난다. 또 만났다는 사람을 보면 이상해져버린다. 예수를 만났다가거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다 이상해져버린다. 정상적인 인간이 안 된다.

알고 보면 만나도 안 되고, 안 만나도 안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세계에서는 못 만나기를 잘했지 만났더라면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고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또 여러분이 나를 따라왔다가는 여러분도 다 미친 사람이 되어 버린다.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길을 막아서 못 가게 만들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었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사 나에게 그것을 안 준 것이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내가 만일 그것을 했으면 나는 다른 길로 간다. 나는 한번 가면 내가 싫어서 그만 둔 적은 없다. 그때 연합오순절교회라고 있었는데 미국 선교사가 와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거기서 연결이 되어서 갔는데 이분들이 나를 자기들 교단에 쓰려고 성령을 받게 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다. 그런데 거기는 일단 방언이 되지 않으면 입문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못한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 내외분이 다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안 터졌다. 이상했다. 그때는 내가 이상한 줄 알았다.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했다.

그런데 그때 만일 되었더라면 나는 그리 흘러갔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다. 예수께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빠져 버린다. 그런 은사, 신비주의 이런 데로 빠져버린다. 나는 그럴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때 아주 곤고할 때 그분들이 나와 관계가 되었다. 올 데 갈 데가 없을 때 관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됐으면 틀림없이 갔다. 그래서 그때 내가 원고 교정을 해봤다. 왜냐하면 직접 참여는 안 되니까 거기서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원고를 교정하라고 했다. 국어도 배우고 원고 교정하는 것을 그때 배웠다. 그런 것 밖에 안 시킨다. 다른 것은 시킬 수가 없다.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다.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거기서 교역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때 참 안타까웠다. 안타까웠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천만천만 만만만만 다 행한 일인지 모른다.

안 된 것도 복이 된다.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지리 안 된 것이 복이 된다. 그때는 정말 그것밖에 하고 싶은 것이 없었다. 그때로서는 그랬다. 그런데 그것이 안됐다. 내가 소원을 여러 가지 둔 것이 아니고, ‘이것 한 가지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인지 내가 안 된 것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안 됐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삭이 눈이 멀어 축복을 잘못 했다. 이삭이 눈이 좋고 젊었으면 절대로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큰 아들 예서가 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사람이 좋다. 아주 호탕한 사람이고 남자답고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삭은 큰 아들이 맘에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축복을 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모른다. 못 본다. 결국 자기 아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야곱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것을 자기가 모르고 축복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삭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축복을 한 것 같다. 멀쩡할 때 축복하라고 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눈이 어두우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했다. 그런데 야곱을 축복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된 것도 축복이 된다.

참 이상하다. 그렇다고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하겠는가? 일부러 그럴 사람은 없다. 뻔히 알면서 축복을 하기위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축복한 것인데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고집이 있으면 내 고집대로 하게하고 하나님이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그의 손에 있기만 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도 된다. 왜냐하면 사실 다 모르기 때문이다.

옛날에 그것을 구별해 보려니까 참 어려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구별해 보려니까 이것이 헛갈리는 것이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 영이냐 혼이냐 그것을 구별해 보려니까 그것도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인지, 어느 것이 혼인지 모른다. 두 개가 있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을 할 때마다 가리려니까 어려운 것이다.

C.C.C.에 있을 때인데 우리 형제들이 워치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고 와서 맨 날 하는 질문이 어느 것이 영이고 어떤 것이 혼이냐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는가? 그래서 안 되거든 보지마라고 했다. 그래서 그 책을 안 읽었다. 참 어려웠다. 쉬운 것이 아니었다. 자세하게 써 놓았다. 너무 섬세하게 써 놓은 책이다. 3권으로 된 책인데 양이 아주 많다. 그런데 그것이 목숨을 걸고 쓴 책이라고 한다. 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는데 자기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어야겠다고 해서 책상에 베개를 받쳐놓고 그렇게 집필한 것이다. 책을 읽어 보면 조목조목 다 써 놓았다. 그런데 그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더 헛갈린다. 더 어렵다. 자기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이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어렵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성경도 일단 해석이 안 되면 놓아두면 되고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알게 해 준다.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 아닌가? 내가 마음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것을 알아야 할 때는 이것을 주고 저것을 알아야 할 때는 저것을 주고 할 게 아닌가? 1학년 때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3학년 때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선생이 그것을 모르겠는가? 다 안다. 그래서 요즘 임용교사 시험을 볼 때도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교육과정은 교안을 짜는 것인데 1학년에게 6학년 것을 짜 놓으면 되겠는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시겠는가? 당연히 나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시니까 내 수준에 맞춰서 다 알게 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잠이 오는 사람은 자고, 들을 사람은 듣고 알아서 하시기 바란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가을에 단풍 좋다고 나가면 안 되고 교회는 꼭 오면 된다.

이 구절도 옛날에 읽었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다. 알 때가 되어야 알아지는 것이지 그냥 억지로 아는 것이 아니다. 독생자와 뱀을 보라. 뱀을 본 자는 살았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쳐다 본 사람은 산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 산다. 어디를 보니까 사는가? 그가 뛰어 내리지 못한 것을 보니까 산다. 뛰어 내렸다면 나는 소용이 없다.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나와는 천 길 만 길 멀어진다. 영 접촉점이 없다. 만날 자리가 전혀 없다. 이 자리밖에는 만날 자리가 없다.

이것은 은혜가 아닌가? 이 자리까지 내려 오셔서 우리를 만나려고 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 보라고 조롱하는 자리까지 왔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한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십자가를 질 사람이 졌으면 괜찮다. 옆에 있던 강도가 그랬다. 우리는 당연히 받을 죄 값을 받고 있지만 저 사람은 죄도 없는데 벌을 받는다고 했다. 죄를 지고 받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억울하고 그것뿐인가? 뛰어 내리지 못한 것은 더 부끄러운 것이다. 거기까지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다.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도 자식과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자식의 눈으로 내려와야 된다. 끝까지 아들과 싸우면 그 아들은 병신이 되고 만다. 나는 잘하는데 저놈이 저런다고 하면 망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내가 만일 옳고 자식이 잘못됐을지라도 그 자식을 살리려면 그의 눈높이로 내려와야 되지 않은가? 그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는가? 그것을 하기는 어렵다. 내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저놈이 저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 때문에 무슨 이유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말끝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죽는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이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볼 때 그렇게 보이면 학생들을 망치는 것이다. 일생을 망치는 것이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는 아주 무서운 상처다. 학교에서 선생님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란다. 부모 다음은 선생이다. 특별히 초등학교 선생님은 더 그렇다. 전혀 말도 안 듣고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다. ‘당신 떠드시오.’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심각한 아이들은 조금 잘못해버리면 버린다. ‘너 이거 왜 못해.’라는 이 한 마디도 사람을 버릴 수가 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밑에 자식들이 참 어렵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느냐고 한다.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느냐고 하면 아이들은 할 말이 없다. 할 말은 없는데 사람은 죽는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고생을 해서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면 아이들은 죽는다.

효도하는 집안의 아이들을 보니까 이상하다. 부모는 엉망인데 아이들은 효도를 한다. 참 이상하다. 오히려 잘못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부모들에 대해서 동정심

이 생기는 모양이다. 자기 부모가 너무 잘못하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엉망인데 아이들은 효자가 많다. 그런데 부모가 참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한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낮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 허물도 이야기 해주면 자기도 위로가 될 것이 아닌가? 나는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다고 하면 결석을 자주 하는 놈은 죽는다. 나도 이래서 결석을 해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은 우리 수준까지 내려왔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수준까지 내려왔다. 성막으로 내려오신 여호와, 산꼭대기에만 계시던 하나님이였다. 원래는 하늘에 계셨지만 사람을 만나러, 모세를 만나러 산꼭대기에 오셨다. 거기는 아무도 못 올라간다.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면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만 거기에 올라갔다. 그래서 받아온 것이 성막이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만났지만 다른 사람은 못 만나니까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려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캄캄하고 빛이 없는 그 속에 자기 혼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그런데 백성을 만나려면 그렇게 해서 밖에는 못 만나니까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때문에 지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제자들은 다 떠 소리만 했다.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이러고 있었다. 수준이 그런 수준이다. 그런 사람을 가르친다고 되겠는가? 뭘 한다고 되겠는가? 아무 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갈 데까지 간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

현재도 우리가 무슨 이유로 거절한다면 어디 가서 내가 그를 만나겠는가? 만날 자리가 없다. 더 이상 만날 자리가 없다. 뛰어 내리지 못했는데 더 이상 어디를 가서 만나겠는가? 거기 가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내가 저기 있구나. 나를 만나려고 저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들을 거기에 두셨구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제물로 바친다는 말도 된다. 제물로 드린다는 말도 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놓았다는 말도 된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제물로 놓아 두셨다. 준다는 말이 제물로 드린다는 말도 된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었지만 우리가 못 받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독생자를 주셨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주었는데 먹을 줄 모른다거나 좋은 것이라고 주었는데 좋은 줄을 모르고 버려 버린다면 길이 없다. 보물이라고 주었는데 이까짓 것이 무슨 보물이냐고 하면서 고물상에 가져다 팔아 버리면 헛일이 아닌가?

고물상에 가끔 아주 값비싼 것이 고물로 들어온 것이 있다. 아주 값비싼 것이다. 혹시 장물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고. 장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버리느니 갖다 준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 속에 구리가 얼마가 들었다 아는 것이다.

제주도 영*형제 가게에 있다 보니까 별 것이 다 들어온다. 말짱한 것도 들어온다. 하나님이 아무리 줘어도 우리가 못 받으면 헛일이다. 그리고 껍질만 받으면 그것도 헛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3:16).”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가? 많이 부르지만 이것을 모른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부른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외우면 좋다. 그래야 때가 오면 생각이 난다.

성경구절을 외워 놓으면 좋다. 다른 것은 억지로 하면 안 좋지만 외우는 것은 억지로라도 외워 놓으면 좋다. 여러분은 충기 있을 때 많이 외워 놓으시라. 좋은 구절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외워 놓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십자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흙은 흙의 자리에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흙이 자기 마음대로 거절하면 농사를 어떻게 짓겠는가? 콩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콩을 뿌리려고 왔는데 흙이 모두 일어나서 데모를 해버리면 우리는 콩이 싫다, 콩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민주주의를 해버리면 망하는 것이다. 흙은 그냥 농부가 콩을 뿌리면 콩밭이 되고, 팔

을 뿌리면 팔밭이 되는 것이니까 자기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콩밭이 되든지 팔밭이 되든지 하는 것이다.

아담이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겠는가? 그럴듯한 농부가 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 이니라(창3:5).”한 그 농부에게 꼬여서 먹은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가 흙이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농부가 와서 갈고 씨를 뿌린다. 흙이 뛰어 다니면서 내 권리 네 권리 찾으려면 못 쓴다. 쓸 수가 없다. 그런 밭은 쓸 수가 없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안에서 만나고, 나도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다. 금년에는 콩이 필요해서 콩을 심었지만 내년에도 꼭 콩이 필요 하라는 법은 없다. 농사를 짓는 분에게는 고구마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심는 것이다.

그러면 흙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나는 콩만 필요하다거나 나는 고구마만 필요하다는 흙은 쓸모가 없는 흙이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한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서 거듭나는가? 거듭난다는 것도 옛날에는 참 어려웠다. 거듭나는 것은 어디서 거듭나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다. 거듭남이 다른 것이 아니다. 죽기도 같이 죽고 살기도 같이 사는 그것이 거듭난 것이다. 이것이 새 생명이이다.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내 행실을 어떻게 바꾸면 거듭나는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듭났느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했다. 옛날에는 다 그랬다. 거듭났느냐고 물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이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자기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는 것이다. 죽고 다시 사신 분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거듭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다. 다른 일 같으면 왜 못 알아들었는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납니까?” 이런 이야기나 묻게 된 것이다.

만일 행동으로 거듭나는 것이었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왜 거듭나지 못하겠는가? 100번이라도 거듭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세계와 다르다.

“선한 선생이여.”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나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 오늘 우리도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선하고 악하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이것이 문제다.

사도요한이 이 구절에 써 놓은 말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기 바란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말이다. 천주교에 보니까 참 좋은 말이 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면 신자들은 ‘사제님에게도...’라는 말로 화답한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아멘은 해야 한다.

내게 축복이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보니까 서툴러서 잘 안 된다. 천주교에서는 말을 잘한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제님에게도...’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내게 복이 된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기를 바란다. 아멘!

[기 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도 다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더 낮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